

지역 소식통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읍시, 조기 지급

정읍시가 올해 처음 시행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조기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유지, 식량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여름철 태풍·장마 피해 등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예정보다 한 달 정도 앞당겨 20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직불금 예산은 478억원으로 지난해 321억원보다 157억원 증가했다.

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자격요건이 검증된 1만2천여 농가·농업인을 확정하고 국비로 확보된 359억원의 직불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자살예방사업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고창군이 지난 20일 '2020년 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 실무자 워크숍'에서 2년 연속 자살예방사업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군민에게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이끌며 도내 14개 시·군 중 자살사망률 최저를 기록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라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군은 지역주민을 '생명사랑 지킴이'와 '정신건강지원봉사자'로 양성했다. 이들이 주변에 자살위험이 높은 대상자를 발견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적절한 정신건강 전문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또 농약안전보관관과 번개탄 보관함을 보급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숙박업소에 설치했다. 어린이집·학교·마을회관·노인시설 등 생애주기별 자살 예방교육과 우울증 검사를 실시해 생명존중 인식을 높였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환경부 '손잡다'

도시생태축 복원 협약... 녹지연결로 등 2022년까지 완공 고창읍성·자연마당 등 연계 생태관광 새로운 명소 기대

'대한민국 명품 생태도시' 고창군이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 환경부 등과 손을 맞잡았다.

지난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지자체-학계-업계 도시생태복원 25+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환경부와 올해·내년 그린 뉴딜 보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창군을 비롯한 8개 지자체(경기도, 대전광역시, 화성시, 청주시, 밀양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고창군 곡성군), 한국

환경복원기술학회, 한국생태복원협회 등이 참여했다.

환경부에선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지자체는 생태복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한다. 학회와 협회는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해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그간 고창군은 사업대상지 주변에 개설된 도로(노동로)가 고창읍 남북 산림생태축을 단절해 도시생태계의 연속성이 끊어져 왔다.

이에 고창군은 녹지연결로, 생태습지, 탄소저감숲, 생물서식공간, 자연관

찰로 등을 2022년까지 완공해 군민에게 최상의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비 70억원을 확보해 이중 70%(49억원)를 국에서 보조를 받아 추진된다.

생태복원 사업이 완료되면 고창자연마당 노동저수지, 고창천, 주진천, 인천강하구 습지 등 산림 하천 연안 생태계의 생태축 연결이 완성돼 명실상부한 생태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천선미 고창군 부군수는 "2022년 명품 생태공원이 완성되면 고창읍성-고창자연마당-노동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와 연계해 생태관광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내년도 예산안 9110억원 규모 편성

전년 대비 3%감소... 일자리 사업·민생 안정 등 집중

정읍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 기반 마련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을 정읍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읍시의 2021년 본예산은 2020년 본예산 9,396억 원보다 3% 감소한 9,110억 원(일반회계 8,479억 원, 특별회계 63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839억 원, 지방교부세 3,873억 원, 조정교부금 201억 원, 국·도비 보조금 3,346억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220억 원 등으로 이중 일반

회계 자부재원은 4,913억 원 규모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 불안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민생안정의 조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또한 취약계층 보호와 일자리 사업, 재난 대응 체계 대비 미래 성장동력 견인할 수 있는 현안 사업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분야별 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32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43억 원 ▲교육 80억 원 ▲문화 및 관광 516억 원 ▲환경 427억 원 ▲사회복지 2,547

억 원 ▲보건 117억 원 ▲농림해양수산 1,699억 원 ▲산업·중소기업 128억 원 ▲교통 및 물류 439억 원 ▲국토지역개발 619억 원 ▲과학기술 38억 원 ▲예비비 320억 원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1,177억 원 등이 반영됐고, 7개의 특별회계 분야에 631억 원 등이 편성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확정할 계획으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산재된 현안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아름다운 노년위한 텃밭 가꾸기' 사업 성료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센터 이용자와 가족들 치매 안심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향기로운 인생,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은 가능성 식물자원을 활용해 실생활 습관의 변화와 심신 건강 인지 자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텃밭에서 자연 생명과 교감하며 인지력과 지각 능력을 회복하고 치매 어르신들과 돌보는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부터 10월까지 매주 수요일 운영했으며 텃밭에 직접 모종을 심어 가꾸도록 어르신들의 인지능력 향상에 도

움을 줬다. 또한, 환자들이 가꾼 식물들을 활용한 요리와 차 만들기, 기능성 식물을 활용한 허브 족욕 등을 통해 스트레스와 우울감 완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목련아파트 2단지 내에 미니정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과 더불어 마을주민과 어르신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과 다양한 치매 예방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정읍시 치매안심센터는 '향기로운 인생,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개발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2021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2건이나 선정되어 녹색자금기금 5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사진은 줄포만갯벌생태공원.

부안군, 2021 녹색자금 공모 2건 선정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등

부안군(군수 권익현)이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실시한 2021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2건이나 선정되어 녹색자금기금 5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공모사업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과 '복지시설나눔숲 조성사업'이다. 특히,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은 올해 '서립공원 무장애나눔길'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

무장애나눔길은 줄포만갯벌생태공원에 보행약자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목재데크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줄포만갯벌생태공원은 갈대·억새 숲 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기 위해 매년 2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나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부안군은 녹색자금기금 4억원, 군비 2억원을 투입하여 모든 계층이

즐표만갯벌생태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갈대·억새 숲을 조망하는 데크길과 황토길을 조성하여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부안군의 인기관광코스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시설나눔숲은 사업은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이 거주·이용하는 사회복지 시설에 수목식재 등을 통해 건강 증진 및 정서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산면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동근마을보금자리에 녹색자금기금 8,6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에 입주하는 장애인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과 치유의 녹지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내년도에 조성하는 무장애나눔길과 나눔숲 조성을 통해 보행약자층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군 공무원들, 새만금 사업지구 견학

동서2축도로 개설현장 등 주요사업장 3개소 현장답사

부안군 시설직(토목)공무원 34명은 11월19일 새만금 사업지구내 동서2축 도로를 현장답사하고, 2023년 세계스카우트캠버리 부지조성 현장과 수변 도시 조성현황 등을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청취하였다.

부안군 공무원들은 새만금개발계획, 도로의 연결 캠버리 준비 사항 등 각종 국가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새만금 개발청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들과 토론회하고 현장학습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도로공사 완공전인 동서2축도로와 사업추진중인 남북2축도로의 공사 진행상황 등을 살펴보았다. 동서2축도로 사업과 함께 역점적으

로 추진하고있는 캠버리부지 조성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로부터 조성현황 청취후 부지조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고,

금년말에 착공예정인새만금수변도시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한 스마트시티조성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부안군도 수변도시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에 대한 방안등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통해 지역개발에 기여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하였다.

/부안=김석진기자

Advertisement for 'Our Home'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featuring a polar bear and text about climate change and carbon emissions.